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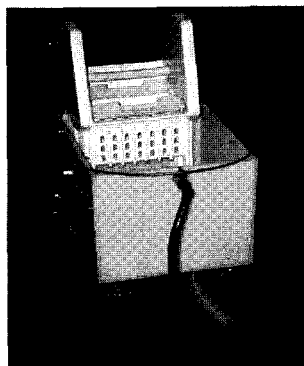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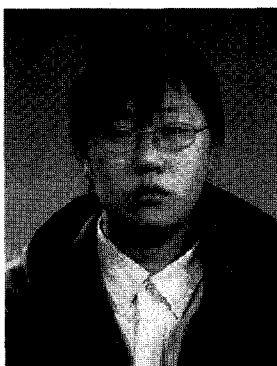
발명으로도 대학 간다

영동여고 한아름, 발명특기자로 입학

최근 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요강에 각종 특기자들을 모집, 각 분야에서 앞서가기만 하면 뛰어난 성적만 가진 학생들보다 더 넓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중앙대학교 발명특기자로 입학하게 된 영동여자고등학교 3학년 한아름 학생이 그들 중의 한 사람.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한 것이 많았던 한아름 학생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기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집에 있는 물건에 사소한 고장이 생기면 "내가 고친다"고 하다가 더 고장을 내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과학상자 만들기, 글라이더대회 등에 참가하면서 과학 쪽에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된 그녀는 중학교에 입학해 발명반에 들어가 발명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갔으며, 방학 때는 발명기초반, 심화반, 영재반, 에디슨반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발명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아름 학생은 이런 발명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학교 때부터 많은 발명대회에 참가, 제24회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배력장치를 응용한 대걸레 빨순이'로 은상을 받는 등 많은 상을 받았으며 발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 200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중앙대학교 발명특기자로 입학하게 된 한아름 학생(왼쪽), 그녀가 전국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던 발명품 '배력장치를 응용한 대걸레 빨순이' (오른쪽).

발명이야기대회와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 여성발명 아이디어 현상공모전에 참가하여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그녀는 각종 발명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상품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접촉면이 넓어 잘 닦이는 대걸레'로 실용신안 등록(제0226396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명에 대한 관심과 경험들이 그녀를 대학 '발명특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그녀는 "발명은 절대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불편한 점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이 곧 발명이다"라며 "불편한 점을 하나씩 고쳐 나가다 보면 모두 훌륭한 발명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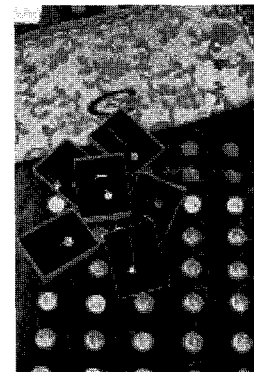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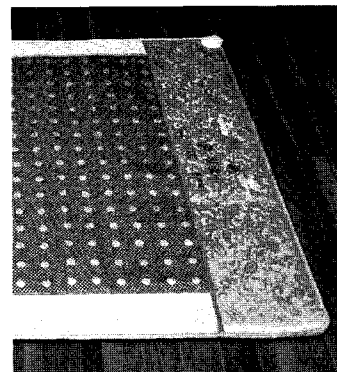
건강에 좋은 은(銀) 이제 매트로 즐기자 전기순은의자용 매트선보이다

CAMI은점토공예(대표 나순임)는 장신구로 즐기던 은을 점토공예에 사용,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건강용품으로 만들어 출시한다.

미술교사였던 CAMI은점토공예 나순임 대표는 일본 은점토의 높은 가격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국산 은점토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귀금속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은점토 공예 기술을 전수하던 중, 점토공예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은매트를 개발, 실용신안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만들어 출시하고 있다.

은점토 공예가였던 그녀의 주위에 항상 자리잡고 있던 은. 위장이 좋지 않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좋지 않은 몸 때문에 다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은 선을 깔은 매트로 효과를 본 그녀는 건강에 좋은 은을 모든 이들이 체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3년 간의 연구기간을 걸쳐 은매트를 개발하였다.

또한 은과 높은 온도가 결합하면 그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기 순은 의자용 매트와 찜질매트를 선



▲ 각종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은찜질매트(왼쪽)와 순은 의자용 매트, 은점토 공예제품(오른쪽).

보이게 되었다. 나순임 대표는 "나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효과는 보장할 수 있다"며 "식체, 위장병 환자, 피부병 환자 등 각종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매트는 인터넷사이트(www.camisilvermat.com)를 통해 판매되며 실용성과 심미성 모두를 고려해 만든 것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전기자전거 개발

뉴런테크(www.newruntech.com/대표 기윤중)가 국내 처음으로 전기 자전거를 개발했다. '부하감응식 구동방식'이라는 독창적인 기술로 개발한 이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정용 전기로 충전하면 월 800원 미만의 전기 사용료로 유지비용도 저렴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뉴런테크는 현재 국내 34건의 특허와 해외 26개국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개발로 전세계 6조원 이상의 전기자전거 시장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에 전용 실시권 계약이 완료되어 연간 1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며 일본,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100억원 이상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자전거 구동방식은 제조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매우 가볍고,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갈 수 있게 접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고 자전거에는 최고 속도 제한 및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한 기능이 부가돼 있어 안전성이 뛰어난 일상생활과 레포츠 용도로 매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복제 방지기술 특허 취득

무선보안 전문업체 드림시큐리티(www.dreamsecurity.com/대표 황석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기술을 개발, 이에 대한 특허(출원번호 제2000-45244)를 받았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공개키기반구조(PKI) 원천기술을 이용해 소프트웨어에 개인키와 공개키 및 인증서를 탑재함으로써 불법복제를 막아준다. 제품을 설치하려면, 사용자의 컴퓨터는 온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판매자의 마스터 서버에 연결되고 소프트웨어에 포함돼 있는 개인키와 공개키 및 인증서가 전달된다. 이후 판매자의 서버가 이를 확인해 사용자 정보가 정당하면 제품을 인스톨 할 수 있는 비밀키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드림시큐리티의 법진규 이사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정보와 인수물의 횡수가 포함된 데이터가 확인 된 후 인스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서버에서 인스톨의 횡수를 제어하는 PKI 응용기술의 하나인 이 기술이 앞으로 기존 불법복제 방지 기술을 대체하여 게임과 업무용 패키지 프로그램에 적용해 저작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따르는 한국수출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 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 되는 오직 1%의 제품만이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Quality guaranteed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산 · 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카보나는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